

<5강 인트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사무엘하 강의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하 11장부터 13장 22절까지의 내용을 ‘다윗의 범죄와 재난’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강으로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18장까지 내용을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배반과 쫓기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혹시 해당 범위의 성경을 읽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추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39절> 전환 장면

사무엘하 13장에서는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제적으로 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압살롬은 하나님의 축제를 엽니다. 이 축제는 양털을 깎는 날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감사절과 같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 행해졌습니다. 이때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큰 잔치를 벌여 이웃과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 양털깎는 날을 이용하여 암논과 그의 형제들을 자연스럽게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 암논이 술에 취해 즐거워할 때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 왕 달매에게 도망갑니다. 그술 왕 달매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죄에 대한 자책감, 죽임을 당한 암논에 안타까움, 그리고 압살롬의 대한 염려의 감정들이 뒤섞이어 통곡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다윗은 암논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잊어버리고, 오히려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 한다는 것을 요압 장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합니다.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했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던 일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듯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는 자존심이 크게 상하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비유를 통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요압은 드고아의 여인을 매수하여 그 입에 꾀를 넣어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부가 된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다 동생이 죽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을 살인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동생을 죽인자는 마땅히 대가를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합니다.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본심을 말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4:13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왜 쫓겨난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며 다윗의 마음 문을 열게 합니다.

결국 암살롬은 다윗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암살롬이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암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고대 사회에서 서로 포옹하면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용서와 화해를 뜻했습니다. 이로써 암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한 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다윗은 암살롬을 용서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그런데 그 후에 암살롬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을 경비하는 호위병을 오십명이나 세워둔 것입니다. 이는 용서 받은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장차 자신이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마음이 호위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아침 일찍 성문 길 곁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문은 재판석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불만있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계속 들어왔겠죠. 암살롬은 성문에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느 지파 출신인지 묻습니다. 각 지파에 맞게 말을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암살롬은 다윗이 재판해 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불들고 입맞춤까지 해줍니다. 암살롬은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계략을 꾸밉니다.

사무엘하 15:7-8

7 사 년 만에 암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8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암살롬은 4년 동안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하였고,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며 보내달라 다윗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왜 헤브론일까요?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되어 7년 반을 다스린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통합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셔갔죠. 그러자 헤브론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이 왕으로 섬겼던 그가 더 큰 곳으로 갔기에 섭섭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암살롬은 이들의 마음을 잘 이용하였습니다.

암살롬은 아무것도 모르는 200명의 무리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팔소리를 듣거든 “암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붙여 왕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살롬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다윗에 대한 반역도 크지만 하나님께 더 큰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암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다윗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평안했던 다윗의 궁에 큰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아들 암살롬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만약 이 때 다윗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목숨을 거는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을 따라나섰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따라 나섰던 것이죠.

여기에는 가드 사람 잇대가 목숨을 걸고 따르려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진심으로 잇대의 안위를 생각하며 머물라 합니다. 그렇지만 잇대는 죽으나 사나 다윗을 따르겠다고 백하고 결국 다윗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걸었던 시내입니다. ‘기드론’은 ‘검다’라는 뜻인데요. 가까운 성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오물들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했습니다. 그럴기에 늘 물이 뿐열고 턱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사독은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거절하며 돌아가라 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암살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고, 다윗은 자신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도중 어떠한 한 사람이 암살롬과 함께 자신의 신하였던 아히도벨도 그 무리에 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사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였고, 지략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배신한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 다윗은 이를 자신이 해결하려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용지물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죠. 배신한 신하를 자신의 손으로 꼭 죽이겠다 다짐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계속 되는 이야기 속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전환 장면

사무엘하 16장에서는 총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다윗에게로 향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피난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어하셨습니다. 바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그 중 첫번째 이야기는 시바의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피난 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므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을 뒤 따르기 위해 나온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시바는 므비보셋의 종이므로 시바가 있다면 므비보셋도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 다윗은 시바에게 물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거짓말을 합니다. 므비보셋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왕국을 회복하려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므비보셋을 어떻게 해주었나요? 초록도 없는 황폐한 땅에 숨어있었던 므비보셋을 같은 식구로 여기고 왕의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토지를 주고 시바라는 종까지 주었죠. 그런데 암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자 이때다 싶어서 므비보셋이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괴씸하게 여겼는지 성급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므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모든 땅을 시바에게 주겠다 명령하죠. 여기서 다윗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문제의 진위여부를 잘 따져 봐야했음에도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 므비보셋이 마중을 나오는데 이 때 진실이 밝혀집니다. 다리를 저는 므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는 그날부터 애통해하며 발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을 뿐더러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두번째 이야기는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이제 다윗은 바후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사울의 옛 고향이죠. 이곳에는 사울의 친족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 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라며 저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다 나섭니다. 하지만 다윗은 저주하는 그를 내버려 둡니다. 이 사건이 바후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윗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있었을 때 자신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하여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다윗에게 버려졌었고,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갈이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죠. 결국 미갈은 다윗에게 돌아갔고, 미갈의 남편이 울며 따라왔던 장소가 바후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들을 하나 하나씩 기억하게 하시며 죄를 다시 상기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셨습니다.

16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히도벨의 끔찍한 계략입니다.

어느덧 암살롬은 반역에 성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옆에는 다윗의 신하였으나 암살롬에게 판세가 기운 것을 보고 배신했던 사람! 당대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16장 2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암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의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친구 후새입니다. 그는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제사장들과 함께 따라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며 궁궐에 첨자로 남아있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후세는 암살롬에게 “왕이어 만세!”라고 외칩니다. 사실 후새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암살롬을 높이는 것 같지만 왕 앞에 이름을 불이지는 않았습니다. 거짓으로라도 친구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암살롬은 후세를 의심했지만 자기를 높이는 말인 줄 알고 곧 의심을 거둡니다.

이제 암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앞으로 행할 계략을 알려달라 말합니다. 그 계략은 다윗이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암살롬은 옥상에 천막을 치고 백성들 앞에서 후궁들과 동침하는 무서운 사건을 벌입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승자가 패자의 아내를 겁탈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정치적인 행위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러한 기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은 이전에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11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예고했던 책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인데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즉,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가문을 더럽힌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암살롬이 반역할 때 아히도벨도 배신을 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그동안 숨겨왔던 복수의 칼을 크게 휘두릅니다. 그렇게 무고하게 수치를 당한 열 명의 후궁들은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 과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은 또 하나님의 계략을 제시합니다. 먼저 암살롬에게 병사 만 이천을 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힘이 빠진 다윗이 뒤를 쫓아 기습하면 백성들이 도망할텐데 이 틈을 타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만 잡으면 끝난다는 것이죠. 이에 암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암살롬이 후새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제안을 합니다. 암살롬이 봤을 때 후새도 아히도벨 뜻지 않는 지략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새가 누구인가요? 후새는 다윗의 오랜 친구로 궁궐에 남아있는 첨자였습니다.

후새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반대합니다. 지금 다윗은 잔뜩 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치려하다가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제시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들을 다 모으고, 암살롬이 직접 전쟁에 출전하여 기습한다면, 다윗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암살롬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무엘하 17:14

암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암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새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여 후새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 후새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터무니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오히려 아히도벨의 작전이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지략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암살롬의 마음을 움직여 후새의 의견을 듣게 합니다.

이에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 자결합니다. 자신의 손녀를 옥되게 한 다윗을 복수하기 위해 달려온 아히도벨! 하지만 그는 영적인 판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판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자결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가요? 하지만 다윗은 수많은 실수와 죄 속에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죠. 우리의 눈이 미움으로 인하여 가리워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8장> 전환 장면

다윗은 무리를 이끌고 피난길에 올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님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임시 정부를 세우고 군대 조직을 개편합니다. 군사를 세 등분하여 3분의 1씩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나누어 맡깁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래된 장군으로 당대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잇대는 블레셋 가드사람인데 다윗에게 망명해 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군대를 망명한 자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잇대를 신뢰했는지 그에게 군대의 3분의 1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다윗이 출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적들이 노리는 것은 다윗의 목숨이니 성에 남아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조언을 따라 전쟁에 출전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8:5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암살롬을 너그려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암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과연 이게 왕으로서 할 말인가요? 다윗의 무리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나를 위하여 젊은 암살롬을 너그려이 대하라”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요? 하지만 다윗의 무리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이해해 줍니다.

이제 다윗의 무리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 군대가 얼마나 노련하고 지혜로운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암살롬의 세력이 자신들보다 더 큰 상황이니 전면전으로 다가간다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숲에서 싸운다면 대등한 싸움이 됩니다. 숲에서는 숫자가 많을 수록 뒤엉키고 혼란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리들은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싸웠고 이만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무찌르며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무리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카메라의 앵글이 암살롬을 향해 비춰줍니다.

사무엘하 18:9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노새는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자 노새를 타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그만 머리가 나무에 걸리고 맙니다. 그
바람에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나뭇가지와 땅 사이의 공중에 대롱 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은 머리털이
무거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흡모하는 자랑거리이자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추구하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높여주었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가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다윗의 무리 중 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이를 요압에게
보고하죠. 요압은 그 병사에게 바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며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다윗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 말하죠. 그러자 요압은 단창 세 개를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이에 요압의 무기는 청년들이 압살롬에게 달려들며
날카로운 무기로 그를 찌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죽게 되었고 그 시신은 돌무더기에
묻힙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떠난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흡모하는 기준에
나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안내>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하 6강으로 사무엘하 19장에서 20장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강의
들으시기 전 말씀을 읽어보시고 오시면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강의 자료실에서 글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